



즉시 배포용: 2017 년 3 월 12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 CUOMO 주지사, 주 전역의 비닐봉지 전담반 개시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비닐봉지 전담반 개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전담반은 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커미셔너 Basil Seggos 가 공동 위원장 Thomas O'Mara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Steve Englebright 와 함께 인솔합니다. 이 작업 그룹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비닐봉지가 뉴욕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법안을 개발할 임무를 지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전국의 앞장에 있습니다. 이 전담반은 이러한 노력에 대한 또 다른 조치입니다. 뉴욕의 자연 자원에 대한 비닐봉지의 비용과 부정적인 영향은 주 전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주 전역에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뉴욕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무장하였습니다.”

전담반 위원들은 뉴욕의 비닐봉지 문제를 해결할 주 전역에 균등하고 공평한 계획을 개발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이 전담반은 지방정부의 경험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들을 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전담반 명단:

- Basil Seggos,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커미셔너
- Thomas O'Mara, 뉴욕주 상원의원
- Steve Englebright, 뉴욕주 하원의원
- Stephen Acquario, 뉴욕주 카운티 위원회(New York State Association of Counties) 전무이사
- Marcia Bystryn, 뉴욕 환경보호 유권자 연맹(New York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 Michael Rosen, 식품 산업연합(Food Industry Alliance)

뉴욕 전역에서 주민들은 해마다 230 억 개의 비닐봉지를 사용합니다. 이 거대한 수량의 봉지는 각자의 경로를 통하여 환경 속에 들어가 우리가 거리를 따라 만든 수로와 우리의 바다 및 호수에서 보이는 쓰레기와 야생동물들을 해치는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봉지들은 자연 분해되지 않고 수십 년간 비닐로 남아있습니다. 뉴욕시 위생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Sanitation)는 최근에 매주 평균 1,700 톤의 비닐봉지를 수거하며 연간 1,250 만 달러의 폐기 비용이 든다고 추산하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비닐봉지와 연관된 환경적 및 재정적 비용과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은 주 전역에 포괄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